

교사들이 직접 생태 학습 공간 기획·제작

부안 백련초, 학년 별 답사육... 학생들 감수성·경제 관념 육성 기대

부안 백련초등학교(교장 김중숙)는 2021년 현재 학생 수 16명(유치원 포함)의 소규모 학교다. 하지만 특별한 교사들과 학생들은 매일 깨어나는 병아리와 키우는 닭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닭장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까지 해 화제다. 이에 따르면 닭장 제작은 STEAM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 실과, 미술, 국어의 여러 교과를 연계한 교육 활동이다. 학년별 닭장을 지어 가장 순위로 경제동물물 길러보고 닭이 낳은 알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올 3월 1일자로 부안읍 김중숙 교장이 첫 출근부터 본 가장 놀라운 풍경은 앞에서 갓 깨어난 병아리를 보는 것이었다.

김 교장은 “교내 부화기 안에서는 노란 병아리들이 4월과 5월 부화기 안에서 계속 깨어나 작은 학생 수로 적막한 학교를 병아리들이 채워주고 있는 느낌이였다”며 “보송보송 어여쁜 병아리들을 보면서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을 지켜본 아이들이라면 감수성은 물론 생명체의 소중함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닭장 제작에 참여한 교사는 “달걀 부화기로도 학교 폭력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런 생생한 체험활동이 많기 때문에 생명존중 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비로운 병아리 탄생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마음은



로 느껴본 아이들이라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환영”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협치가 자리 잡아길 기대합니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이 출마예정자는 이번 의결안 중 교육장 분장 사무에 종래 중학교까지로 돼 있던 것을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새로 포함하고 그 사무 범위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기능까지 명

확하게 규정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소인수 과목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역



별, 거점학교별 공동캠퍼스 운영 및 지역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에 앞장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책임교육은 결국 자치와 협치에서 나온다”며 “이번 심의 의결된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협치가 자리잡게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교육지원청 위 센터

마음상자 선물 꾸러미 전달

완주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방학 동안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다소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상자’ 선물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음상자’는 아이들에게 놀이 물품을 제공해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방하고 친밀한 가족관계 지원방안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마음상자’에는 감정 카드, 감정 일기, 감사 카드, 보드게임, 팝업, 스크래치 그림그리기, 휴대용 선풍기, 석고 방향제, 아이스 스킵, 구급과우치, 파일, 텀블러, 손거울 간식 세트, 24시간 모바일상담 및 위(Wee)센터 이용 안내 등 마음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물품들로 구성했다.

‘마음상자’는 관내 위(Wee)센터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60여 명에게 8월 한 달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달된다.

박숙자 교육장은 “마음상자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처럼 기쁨을 주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 개개인이 마음 돌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한민국 인재상 도전하세요”

도교육청, 오는 27일까지 후보자 접수... 도내 고교 재학(휴학생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전인적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21년째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6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휴학)중인 학생대상으로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소속기관(학교)과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포털

(<http://injeaward.saramin.co.kr>)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학교생활기록부(중·고교) 등은 온라인 제출되며, 추천서는 반드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인편이나 우편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는 지역심사 및 중앙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당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강지훈, 이리여자고등학교 3학년 유다은 학생이 대한



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Lab Rotation 시범사업 실시

학부생에 대학 우수연구실 체험 프로그램 마련

전북대학교가 방학을 맞은 본교 및 타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Lab Rotation’을 시행한다. 이는 4단계 BK21 사업 중 학생요구변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래 연구 동향 육성을 위해 대학원 입학 전 학부생들에게 대학 연구실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45명의 멘토와 74명의 학부생이 참여해 연구실에서의 공동 연구 등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 연구자를 꿈꾸는 학부생들에게 대학을 대표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 프로그램에는 전북대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더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 연구자로서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연수 대학원장은 “우수한 연구자로서의 꿈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우수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에 참여해 봄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 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 달 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우수 연구 분야를 이끄는 동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대학원은 4단계 BK21 사업에 21개 교육사업(팀)과 대학원 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검정고시 시험 장소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1일 실시되는 2021년도 제1회 초·중·고·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88명, 중졸 21명, 고졸 748명 등 총 1,042명이 지원했으며, 전주오송중학교, 전주평화중학교, 전주이중중학교, 전주교도소, 별도시험장 등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른 시험장소는 도교육청 [교육소사-일일 시험-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개인 도사(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관련 응시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전 응시자 마스크(KF94 등급 이상) 착용 의무화, 의심대상자에 대한 격리 조치, 시험장 사인·사후 방역소독,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및 출입차량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현재 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를 10일까지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응시자 유의 사항을 함께 안내했으니 응시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진행에 적극 협조해달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